저소득층 '문화 나눔' 대폭 늘렸다

광주시 문화 바우처 사업 … 지난해보다 2.4배 증가 3억4600만원 확정

"가정 형편이 어려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뮤지컬이며 영화냐 했었다. 문화바우처를 알게돼 아이들과 공연을 보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대화도 더 나누게 됐다. 부모가 경험하지 못한 문화 세상을 우리 아이들은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할 따름이다."('신나는 예술세상' 홈페이지에서)

경제적 여건으로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22일 시작됐다.

특히 올해는 예산이 대폭 늘어난데다, 지원 분야도 다양해져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층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지난 22일 시작됐다. 올해는 외국단체공연과 대중가수 콘서트도 지원을 받는 등 프로그램이 다양해졌다. 사진은 오리지널 뮤지컬 '캣츠'

순수예술 넘어 대중가수 콘서트 등 혜택 확대
1인당 5만원 … '신나는 예술여행' 홈피서 신청
장애인 사업·티켓 기부 등 프로그램 발굴 시급

▲대중가수 공연, 도서·CD 구입도 혜택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진행하는 광주 문화 바우처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복권기금만 예산으로 편성됐던 데 반해 올해부터 시비를 매칭, 총예산은 3억 4천 600만원(지난해 1억 3천 900만원) 규모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뮤지컬, 연극 등 순수 공연과 영화 관람, 미술관람 등에 한정됐던 데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대중가수 콘서트와 외국단체 공연도 관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가수 콘서트는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또 '도서와 음반 구입'도 신설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듯하다.

1인당 지원액은 5천포인트(5만원 상당)로 '신나는 예술여행' 홈페이지(www.artstour.or.kr)회원으로 가입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전국에서 문화바우처를 이용한 인원은 29만 6천명. 광주의 경우 지난해 전체 참여인원은 모두 1만 1천 244명으로 아동및 청소년이 5천 1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2천693명), 장애인(1천138명), 노인(162명)순이었다. 장르별로는 연극과 뮤지컬이 각각 22건이었으며 영화는 20건이었다. 이용객 수로는 영화(4천498명)가 가장 많았다.

광주문진위는 현재 4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중이다. 송승환·조재현 주연의 연극 '에쿠우스', '송승환의 어린이 난타-오즈의 마법사', 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피노키오' 등이 대상작품이다. 참여도가 높은 영화는 대형 멀티플렉스와 협의가 끝나는 4월부터 시행된다.

▲늑장 지원 문제, 프로그램 개발 필요

경기, 부산, 전북, 충남 등이 이달 초부터 사업을 시작한 데 비해 광주는 22일에야 프로그램 신청을 시작, 이용객들의 불만을 샀다. 중앙에서 예산 집행이 늦어진 탓도 있지만 이미 확보된 예산인 점을 감안하면 사업 진행을 서둘러야했다.

문화바우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좋은 작품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광주 지역 프로그램은 101건으로 대구(207건), 강원(134건), 전북(117건), 인천(109건) 등에 한참 못 미쳤다.

또 사업 기간이 아닌 1~2월의 경우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의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 티켓 기부 등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도 급선무다. 그밖에 상대적으로 문화접근성이 더 열악한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기획사업과 지역별 특성화 사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광주문진위 관계자는 "동사무소를 방문하고 사회복지사들을 직접 만나는 등 홍보를 강화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70-57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가 노의웅 가족 6인 특별한 전시회

25~31일 광주 대동갤러리

캔버스 가득 구름을 그리고, 한지를 찢어 붙여 꽃을 만들고, 익살스런 조각품을 다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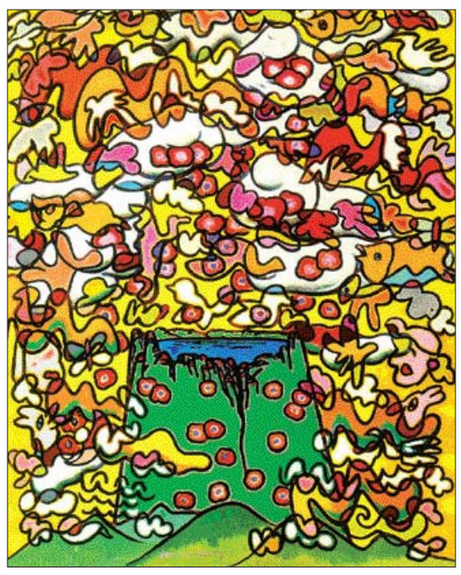
서양화가 노의웅(67·호남대 전 예술대학 학장)씨의 가족 6명이 오는 25~31일까지 광주 대동갤러리에서 '노의웅 한가족 6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노씨와 부인 임순임(61·서양화)씨, 딸 미숙(41·공예·남부대 교수), 미라(37·서양화·동일전자정보고 교사), 미화(34·조각·혜림직업전문학교 교사)씨 등 세 자매와 미라씨 남편 이상열(39·서예·광주여고 교사)씨 등 6명이 참여했다. 또 노씨의 여동생 선순(60·서양화)씨도 찬조 작품을 출품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특선 2차례, 입선 9차례를 한 노씨의 가족은 모두가 작품 활동을 하는 '예술 가족'이다. 미라씨도 지난 94년 광주시전 대상, 95년 무등미술대전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노씨는 이번 전시에서 어린 시절 고향 들판에 누워 바라봤던 구름의 다양한 모습을 원시적 자연으로 형상화한 '구름천사' 연작을 선보인다.

또 미라씨는 오래된 시골집 대문, 산사의 문살, 기둥에 남겨진 흠을 정교하게 그린 작품을 내놨고, 미화씨는 인간의 다양한 표정을 살린 조각을 전시한다. 문의 062-222-0072.



노의웅 작 '구름천사'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5·18 30주년 마당굿 '언젠가 봄날에…' 공연

26·27일 5·18기념문화센터

5·18 30주기를 맞아 공연계가 다양한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놀이패 신명이 그 첫번째 무대를 연다.

놀이패 신명은 5·18 30주년 기념 창작 마당굿 '언젠가 봄날에…'를 공연한다. 26일(오후 7시30분), 27일(오후 3시·6시)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지난 1982년 창단한 놀이패 신명은 광주·전남지역 마당극의 효시인 '고구마'를 시작으로 5·18을 주제로 한 마당극 '일어서는 사람들', '호랑이 놀이' 등을 통해 '전라도 마당굿'의 원형을 지켜온 단체다.

5·18 30주년 기념작인 '언젠가 봄날에…'는 5·18 당시 행방불명된 이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5·18의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한 작품이다. 창작 탈굿, 소리, 춤이 어우러진 한국형 뮤지컬로, 과거와 현재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이야기가 펼쳐진다.

5·18 당시 계엄군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할머니, 남자, 시민군, 여학생 등은 저승에 들지 못하고 이승을 떠돈다. 저승사자의 눈을 피해 하루하루를 보내던 이들의 꿈은 가족 품으로 돌아가 저승으로 떠나는 것.

우여곡절 끝에 할머니, 남자, 여학생의 가족을 만나 눈물의 상봉을 하고 저승으로 떠날 준비를 하지만 도청을 찾은 시민군은 자신은 떠날 수 없다며 홀로 남게된다.

한편 지역에서는 강숙자 오페라 라인의 '무등둥둥', 뮤지컬 '화려한 휴가', 광주시립교향악단과 무용단 등 시립예술단체들의 5·18 기념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돼 있다. 문의 062-527-729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법정스님 책 빌려볼 수 있나요?"

광주 공공도서관 문의 쇄도 … 확보·관리 '비상'

법정스님의 저서들이 전국적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공공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정스님 저서의 운영과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23일 광주 무등·산수·사직도서관 등에 따르면 법정 스님 입적 이후 스님의 저서를 찾는 열람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열람과 대출에 대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특히 법정스님의 대표저서 '무소유'의 경우,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열람 또는 관외대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무소유'는 현재 무등도서관에 4권, 산수도서관 2권, 사직도서관이 1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두막의 편지'는 사직도서관에 2권, '산에는 꽃이 피네'는 무등도서관에 2권, '인연 이야기'는 산수도서관에 1권이 비치되어 있다.

각 도서관들은 품귀 현상과 함께 절판소식이 전해지자 책의 분실 또는 훼손을 염려, 대출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청을 하는가 하면 반납시 꼼꼼히 책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

시립도서관은 열람과 대출과정에서의 훼손 등을 우려해 운영중인 책 중 한 권을 별도 보관실에 보존할 방침도 세우고 있다.

한편, 길상사와 오대산국립공원측은 날이 풀리면서 법정스님의 체취를 느끼기 위해 오대산 산골 오두막에 탐방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입통제'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는가 하면 이곳을 찾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이남씨 '제22회 선미술상' 수상

'모나리자' '묵죽도' 등 명화를 LCD 모니터에 재생시키는 기법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이남씨가 '제22회 선미술상' 수상작가로 선정됐다.

선미술상(대표 김창실)은 국내 대표 화랑인 서울 선화랑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35~45세 국내 작가에게 주는 상이다. 지금까지 서도호, 박은선, 황주리, 김병종, 이석주, 황창배, 손수광, 오용길씨 등이 이 상을 받았다.

이씨는 고전 작품을 LCD 모니터 속에 넣은 뒤 원래의 그림이 움직이고, 주변에는 눈이 내리게 하는 등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실험 정신을 높게 평가받았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 연세대 영상대학원 출신으로 해외 화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월 열리며, 선화랑은 상을 받은 이씨에게 창작지원금 500만원과 국내외 아트페어 참여 등을 지원해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